

간도체험과 강경애의 소설*

장 춘 식**

1. 머리말
2. 계급 이념의 실천적 지향
3. 빈궁의 제시와 현실비판
4. 열악한 환경에서의 자기편달
5. 어둠 속에서의 몸부림
6. 결론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중국사회과학원 민족문학연구소 연구원

국문초록

1930년대 초반부터 40년대 초반까지 10년여를 간도 용정에 체류한 경력을 가진 강경애는 일생 동안 발표한 21편의 소설 작품 중 12편을 간도체험에서 취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강경애의 간도체험 소설을 4부분으로 나누어 이민문학적인, 혹은 조선족 문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채전」이나 「축구전」에서는 작가의 계급이념을 실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유무」에서도 암시적이기는 하지만 역시 그러한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강경애를 카프문학의 동반자 작가로 부르게 된 중요한 단서라 하겠다. 다음 「소금」이나 「모자」에서는 그러한 계급 이념을 주인공의 고달픈 운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어 「그 여자」, 「동정」, 「원고료 이백 원」, 「번뇌」 등 작품에서는 안이에 빠지려는 운동가의 환멸의식을 꼬집으면서 자성과 자기편달을 시도하며 「모자」, 「마약」, 「어둠」, 「검둥이」 등에서는 현실의 암흑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상당 정도 작가의 상실감과 좌절을 표출하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작품들의 주제성향은 저항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대체로 하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노골적인 계급이념 표현에서 점차 현실비판으로 바뀌다가 결국 짙은 상실감과 좌절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작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말기 작품에 이르기까지도 강경애의 작가의식은 저항과 계급이념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이상 살펴본 강경애의 간도체험 소설은 이주민의 삶에서 취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강경애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간도 땅을 혁명과 투쟁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계급적 이념의 소유자인 강경애에게 이주민의 정체성은 투사로서, 투쟁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즉 안수길처럼 현실에 저항도 하고 더러 타협도 하면서 이주민의 생존을 꾀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을 부정하고 지배자와 투쟁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보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말이 된다.

핵심어 : 강경애, 간도 체험, 이주민의 정체성, 조선족 문학

1. 머리말

강경애는 조선(한국)현대문학사에서 가장 걸출한 여류작가인 동시에 중국조선족문학사에서도 유일한 여류작가로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지금까지의 강경애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강경애를 카프의 “동반자작가”로 규정하면서 카프문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여 “비판적 리얼리스트”로 보는 견해이다.¹⁾ 둘째는 강경애의 간도체험을 중심으로 천착하면서 강경애를 재만한국작가로 보는 견해이다.²⁾ 셋째는 특히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여성문학적(페미니즘문학적)인 접근이다.³⁾ 첫째 경우와 셋째 경우의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것 같고 연구 성과도 상당히 풍성하다. 그러나 둘째 경우의 연구는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으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강경애의 간도체험소설을 주목하여 이민문학적인, 혹은 조선족 문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930년대 초반부터 40년대 초반까지 10년여를 간도 용정에 체류⁴⁾한 경력을 가진 강경애는 1931년 단편 「파금(破琴)」을 발표하면서부터 1938년

- 1) 이상경, 「강경애연구」(서울대 석사 논문, 1984) 등 다수. 이상경은 강경애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었던 때는 현실을 극복하여 새로운 전체적 삶을 추구하려 하였으며, 정세의 악화로 전망을 상실한 경우에도 혼돈이나 불안 상태에 빠지지 않고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비판적 리얼리스트”로 평가하고 있다.
- 2) 채훈, 『일제강점기 재만한국문학연구』(깊은샘, 1990) ; 오양호,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연구』(문예출판사, 1996) 등 다수.
- 3) 고은미, 「강경애 소설의 여성의식 연구」(전북대 석사 논문, 1996) 등 다수.
- 4) 간도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다. 이규희는 1932~1942년, 이상경은 1931~1942년, 박충록은 1929~1939년까지라 보고 있어 각자의 견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채훈, 『일제강점기 재만한국문학연구』(깊은샘, 1990), p.34 참조.

「검둥이」를 발표할 때까지 7년여 동안에 모두 2편의 장편소설과 19편의 중단편소설을 포함하여 모두 21편의 소설을 창작 발표하였다. 그 중 간도 체험에서 취재한 작품임에 분명한 것으로는 「그 여자(女子)」(『삼천리(三千里)』, 1932.9), 「채전(菜田)」(『신가정(新家庭)』, 1933.9), 「축구전(蹴球戰)」(『신가정』, 1933.12), 「유무(有無)」(『신가정』, 1934.2), 「소금」(『신가정』, 1934.5~10), 「동정(同情)」(『청년조선(青年朝鮮)』, 1934.10), 「모자(母子)」(『개벽(開闢)』, 1935.1), 「원고료 이백원(原稿料二百圓)」(『신가정』, 1935.2), 「번뇌(煩惱)」(『신가정』, 1935.6~7), 「어둠」(『여성(女性)』, 1937.1~2), 「마약(麻藥)」(『여성』, 1937.11), 「검둥이」(『삼천리』, 1938.5) 등 12편이다.⁵⁾ 그 외에도 「지하촌(地下村)」(『조선일보』, 1936.3.12~4.3)과 같이 인물의 활동무대가 분명치 않은 작품들도 있어 간도체험이 작가 강경애의 창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문학창작의 거의 전 기간을 간도에 체류하면서 보낸 강경애로서는 이러한 취재성향이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라 하겠다.

2. 계급 이념의 실천적 지향

강경애는 이주민의 생활에서 취재한 다수의 소설에서 계급적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무산자의 빈궁과 빈궁 속에서 허덕이는 무산대중에 대한 동정과 그것을 통한 일제식민지통치에 대한 비판은 시종일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게다가 이런 동정과 비판을 조직적 반항에로까지 이끌어 올림으로써 신경향과의 범위를 벗어나 프로문학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최서해 이후 카프문학으로 이어지는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맥을 같이하

5) 본고에서는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소명출판, 1999)을 기본 텍스트로 하였음.

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강경애를 “동반자작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소설작품으로 「채전」과 「축구전」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채전」은 주요섭(朱耀燮)의 「인력거군(人力車軍)」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물 모두가 이주민이 아닌 중국인 원주민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간도체험이나 적어도 중국체험에서 취재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인물 모두가 중국인이고 그 생활 또한 중국인의 혹독한 빈궁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 작가는 작중인물 속에 완전히 용해되어 있다. 거기에 의붓자식으로 성장한 작가의 경력이 그림처럼 비치고 있어 더구나 현장감과 생동성을 획득하고 있다.

마마(어머니)의 친딸 우방이는 늘 좋은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데 자신은 옷도 잘 입지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왕서방의 딸 수방이는 어느 바람 부는 밤에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대화에서 일군을 줄인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일군인 맹서방에게 알려준다. 일하는 사람들, 맹서방이나 추서방 등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맹서방이 자기에게 머리핀을 사다준 것을 늘 고맙게 생각하던 그녀였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맹서방네들은 만일 누군가를 가을이 되기 전에 감원시키면 전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자면 집단파업을 선고하는데 바바(아버지)인 왕서방은 이제 다시 일군을 모집하려면 돈도 더 들고 야채농사에도 지장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맹서방네의 조건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게 된다. 집단파업이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며칠 후에 수방이는 머리에 맹서방이 사다준 핀을 꽂은 채 소문 없이 죽고 만다.

수방이의 죽음은 무엇인가를 암시한 듯한데(아무래도 의붓어머니인 “마마”의 보복으로 죽임을 당한 듯한 분위기다) 그 암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또 무엇 때문에 죽었다는 암시도 주지 않아 들연감만 유발시킨다. 초기작품의 미숙성을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그리고 검열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는지 아니면 이국적 분위기 조성을 노렸던 것인지는 모르나 하필이면 중국인들의 생활을 주제의식의 매개로 삼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

아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제의 심각성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미숙성은 「축구전」에 이르러 큰 변모를 보인다.

「축구전」은 완전히 이념화 된 작품이다. 지난 해 검거선풍에 다수의 급우들이 영사관으로 잡혀 들어감으로써 학교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다고 판단한 이주민의 아들 승호(학생대표쯤으로 보인다)는 반드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꺾이지 않는 존재를 대중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에서 xx회 주최로 열리는 축구대회에 참가하자고 제의하며 회숙이와 합의하여 출전을 결심한다.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학생들은 길회선 철도공사 인부로 들어가고 여학생들은 경마장의 임시 여급으로 일하기로 한다. 그러나 경기에 출전한 D학교 팀은 비록 잘 먹지도 못하고 운동장비 역시 미비하여 경기에서는 졌지만 학생들의 투지를 앙양시키는 데에는 성공한다는 이야기인데 소설에서는 “동무”, “동지”라는 칭호들이 스스로없이 사용되고 있고 운동권 학생들의 형상을 직접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애의 계급적 이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결말부분에서 남루한 옷차림을 한 부인의 D학교 학생들에 대한 동정의 표현은 이러한 작가의 사상을 다시 확인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작품에서 “행진곡이 광광 울린다. 얼핏 바라보니 승호가 기발을 쥐고 앞장섰다. 행진! 그 뒤로는 군중이 물밀듯 따라섰다.”나 “마저 넘어가는 햇볕에 D학교의 깃발은 피간이 붉었다.”는 결구부분의 표현이 암시하는 바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무산자의 단합된 힘과 조직적 투쟁을 기대한 작가의 계급의식을 보여준 것임에 분명한 것이다. 한편 이 작품에 나오는 D학교는 당시 용정에 있던 동흥중학교임이 분명하며 작품의 내용을 이루는 이야기는 한때 동흥중학교의 교사였던 강경애의 남편인 장하일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여 작가의 계급적 이념이 남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해준다.

「유무」에서도 문제의식은 여전히 계급적 이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가가 처음 “나”라는 작중화자로서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한 이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남편이 아직 귀가하지 않은 어

느 날 밤, 전에 이웃에서 살던 복순 아버지가 문득 남편을 찾는다며 나타난다.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그들 때문에 “나”는 찬밥당이나 찌개를 갖다 주는 등 꽤 신경을 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간도주를 하듯 자취를 감추었던 그가 갑자기 나타나니 걱정부터 앞선다. 그래도 굶은 그에게 밥만은 끓여주는데 복순 아버지는 글 쓰는 “나”에게 밤마다 꾀는 기괴한 꿈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꿈이란 “어떤 괴악스럽게 생긴 인간들”(B들)이 그를 끌고 어떤 암흑의 천지로 간다는 것인데 매일 밤 되풀이되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 꿈 이야기는 강한 암시성과 상징성을 띠고 있다. 복순 아버지를 괴롭히는 B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은 아마도 만주를 강점한 일제나 그들에게 협력하는 세력일 것인데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의 빛을 띤 그가 이런 일이 혹시 현실에 실재해 있을 것 같느냐고 진지한 목소리로 묻는 행동은 이 점을 보다 분명히 해준다. 한편 B들에게 고통 받고 있는 복순 아버지를 묘사함에 있어 그의 아내의 입을 빌어 “밤마다 어디를 가기에…땀이 옷에 칙칙하게 배는구려…”라고 한 것으로 본다든지, 그에 대하여 불안과 호기심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나를 그가 “글 쓰는 이”라고 한테 대해 내가 크게 부끄럽게 생각한다거나 그의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내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모를 정도였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볼 때 그는 모종의 지하활동(반만항일 활동, 이념활동 혹은 독립운동)과 관련을 가진 사람임을 알아내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가 “나”의 집에 나타난 목적이 혁명가로 활동하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점에서도 이 점은 뚜렷이 감지된다.

이상 세 편의 작품에서 우리는 작가가 계급이념을 실천적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빈자와 부자의 대립과 갈등을 집단적 행동으로써 극복하고자 한 작품적 실천이라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문학적 실천은 20년대 말 30년대 초 카프가 지향한 프로문학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채전」이나 「축구전」에서 작가의 계급이념이 집단적 행동으로 공공연히 표현된 데 반해 「유무」에서는 상당히 암시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어쩌면 작가의 새로운 표현기법의 실험일수도 있지만 다음 항에서 살펴보게 될 표현기법에서의 뚜렷한 변모양상을 감안하면 단순한 기법실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어간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3. 빈궁의 제시와 현실비판

자연발생적인 신경향과 문학에서 의식적인 이념문학으로의 변화양상을 보인 최서해의 경우와는 달리 강경애의 문학은 그 반대의 양상, 즉 계급이념의 실천적 지향에서 빈궁의 제시와 현실비판이라는 하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하강적”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강경애를 카프의 “동반자” 작가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런 상황은 물론 당시 간도지방의 사회적 현실의 악화⁶⁾와도 관련이 되겠지만 그러한 현실변화에 직면한 작가 강경애의 현실인식 내지는 세계관의 변화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한다.

중편소설 「소금」도 계급이념을 내세운 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유무」의 경우보다도 훨씬 암시적인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 작품은 또한 이주민의 고난사를 작품의 주소재로 등장시키고 있어 주목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이주농민의 삶과 도시이주민의 처참하고 고달픈 삶이 교차되는 지점에 놓인다. 발표 당시 장편소설이라 장르를 명시하고는 겨우 6회

6) 1931년의 “9.18”만주사변에 이어 1932년에는 소위 “만주국”을 조작하여 동삼성을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연재로 중단되었는데 현재의 분량으로는 장편으로 보기 어렵고 중편에 더 가깝다. 그러나 조선이주민의 중국정착과정에서의 비극적인 삶과 그 극복의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은 그 그릇이 장편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크다. 하기에 이 소설을 장편으로 보는 견해도 지나친 무리는 아닌듯하다. “농가”라는 소재목을 가진 제1회분은 이주농민의 아내인 봉식 어머니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들이 바가지 몇 짝을 달고 고향서 떠날 때는 마치 끝도 없는 망망한 바다를 향하여 죽음의 길을 떠나는 듯 뒤라고 형용하여 아픈 가슴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이곳까지 와서 어떤 중국인의 땅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었으나 중국군대인 보위단들에게 날마다 위협을 당하여 죽지 못해서 그날그날을 살아가곤 하였다.

그동안 이어 나타난 것이 공산당이었으니 그 후로 지주와 보위단들은 무서워서 전부 도시로 몰리고 간혹 농촌으로 순회를 한다더라도 공산당이 있는 구역에는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국이 바뀌며 공산당이 쫓겨들어 가면서부터 차~~x~~단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용정에서 중국인 지주가 왔다는 기별에 두루마기를 입고 나가는 남편을 보내고 난 뒤 어머니의 회고담으로 그려진 이민 초기의 일부 경력이다. 그야말로 살아남아 있는 일조차 기적같이 여겨지는 나날들이라 하겠다. 이어 어머니는 벽에 걸린 메주를 보고는 또 소금 값이 비싸 항상 소금기 없는 간장으로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만을 제공해 온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작가는 남편의 출타에 걱정하는 아내의 심리활동을 통해 작품의 배경을 교대하고 있는 셈이다. 이때 마침 하교한 딸 봉염이가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른다. 돈이 없어 오빠인 봉식이라도 공부를 못 시키고 있다는 어머니의 말에 봉염이는 학교 선생의 말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왜 돈 없어요, 왜 오빠 공부 못시켜요?” 하면서 따지며 딸의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을 짓고 있을 때 건너 마을 쪽에서 총성이 울린다.

이러한 이야기 줄거리는 우리에게 이주농민들의 생활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작품은 이주 농민문학의 한 전형으로서 기대됨직했다. 그러나 “유랑”이라는 소재목을 가진 제2회분에 이르러 사건은 그러한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작가는 어쩌면 아예 그런 기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운명선을 보다 넓은 무대에 내세움으로써 장편으로서의 무게를 계산해 두었는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소금」이라는 제목은 이 점을 미리 암시해 두고 있다 하겠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건너 마을에서 울린 총성의 희생자는 바로 남편이었고 선혈이 낭자한 아버지를 업고와 다음날로 장례를 치른 장남 봉식이 집을 나가고 만다는 줄거리다. 봉식 어머니는 집 나간 봉식을 찾기 위해 딸 봉염이와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닌 끝에 용정에 있는 지주 집에 들러 한동안 머물러 있게 된다.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이주농민의 이야기가 도시빈민의 이야기로 방향이 바뀐 셈이다. 이러한 방향전환은 제3회분의 “해산”, 제4회분의 “유모”, 제5회분의 “어머니 마음”, 제6회분의 “밀수입”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제3회분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러하다. 중국인 지주집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강제에 의해 중국인 지주의 아이를 잉태한 봉식 어머니는 긴 여행에서 돌아온 지주가 국자가라는 곳에서 봉식이 공산당으로 처형되는 것을 보았나면서 쫓아내자 거리로 나옴게 된다. 이곳저곳을 헤매던 끝에 어느 중국인집 헛간에서 아이를 낳는데, 한때 이웃에 살던 여인을 만나 도움을 받던 중 아이의 출산으로 젖이 나오게 되자 남의 집에 유모로 들어가 입에 풀칠이나마 하게 된다. 그러나 유모로 있는 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으로 봉염과 새로 낳은 봉희를 차례로 잃은 봉식어머니는 그녀의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기도 하지만, 우선 그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금 밀수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으로부터의 소금 밀수입은 막대한 이득이 남는 대신 그만큼 위험부담이 컸으며 겹겹의 감시망을 뚫고 밤에 무거운 소금 짐을 나르는 일을 여자가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간도일대에서 소금 밀수입은 위험천만하

지만 가장 수치맞는 생계의 수단으로 유행했으므로 주인공 봉식어머니가 소금밀수입에 나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밀수 대열에 낀 봉식 어머니는 흔히 일행으로부터 뒤떨어지기 일쑤였는데 그럴 때마다 길잡이의 도움이 컸다. 그러던 어느 날 갖은 고생 끝에 어느 산마루턱에 당도했을 때 칠혹 같은 어둠속에서 걸음을 저지당한다. 일행은 오로지 그들이 마적단이나 공산당이기를 바랄뿐이다. 잘 빌기만 하면 그들은 소금을 빼앗지 않았지만 관청의 집사대라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참 뒤 그들의 연설이 시작된다. “여러분! 당신네들이 왜 이 밤중에 단잠을 못자고 이 소금 짐을 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라는 내용에서 그들이 공산당임을 직감하였고 그와 동시에 봉식 어머니에게는 연설하는 사람의 음성이 꼭 딸 봉염의 학교 선생의 그것처럼 들린다. 이 대목은 작가의 계산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흘 만에 돌아온 방안의 소금 자루 앞에서 새삼스럽게 일어나는 가족(남편, 봉식...)생각에 소금 처분할 것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달픈 심신을 달래다가 순사에게 들키게 되었을 때 바로 공산당인들의 연설 내용을 다시 떠올리는 어머니의 행위는 이 점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 작품은 적어도 한 이주민여성이 남편과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공산당을 한때나마 원망하지만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체험을 통하여 결국 공산당의 주장에 공감하게 된다는, 이념에의 각성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생전에는 아버지를 그르다고 백번 생각했지만 막상 아버지가 총에 맞아 넘어진 것을 용에 아버지에게 듣고 현장에 달려가서 보았을 때는 어쩐지 ‘너무들 한다?’ 하는 분노와 함께 누가 그르고 옳은 것을 분간할 수가 없이 머리가 아뜩해지곤 하였”던 봉식이 본인이 공산당이 되어 처형된다는 이야기는 이 같은 이념에의 각성을 한결 더 강화시키고 있다. 강경애는 공산유격대의 활동에 민족의 운명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작가가 줄곧 작품 활동을 통하여 표현하려고 했던 주제의식이고 강경애의 현실인식의 기본자세이기도

하였다.

이 작품에서 다시 주목되는 부분은 이념표현보다는 주인공의 비참하고 고달픈 운명의 묘사에 중심이 놓여졌다는 사실이다. 「유무」에서도 감지되고 있는 이러한 표현상의 변모는 「모자」(1935)에서 그 원인이 밝혀지고 있다.

만주사변전만 하여도 시형이 자기의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치었으며 그래서 자기들까지도 시형이 군말 없이 생활비를 대주었던 것이나, 일단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용정사회가 들변하면서부터는 시형도 맘이 변하여 끔찍하게 알던 그 아우를 밤낮으로 욕질을 해가며 역시 자기네 모자를 한결같이 대하였다. 그래서 일절 생활비도 대주지 않는 까닭에 승호의 어머니는 남의 어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일년 전에 남편이 객지에서 죽었다는 기별이 왔을 때 시형은 오히려 좋아하는 눈치를 보이었기 때문에 승호의 어머니는 있는 악이 다 치밀어서 큰 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는 발길을 아주 끊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서 승호 어머니네 일가에 대한 시형의 태도변화는 “9.18”사변 이후 상당수 조선이주민의 태도변화를 전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강경애 소설에서 표현양상의 변모 혹은 분위기의 변화 역시 그러한 사회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음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는 변화된 현실에 대한 강경애의 소설 표현적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된다.

작품에서 주인공인 승호어머니는 의모(義母)와 싸우고는 백일해(百日咳)로 신음하는 승호를 업고 친정을 나선다. 그러나 갈 데가 없다. 시형네가 있으나 원수같이 지내던 터라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별수가 없어서 시형네집에 찾아가니 말끝마다 빈정거린다. 마침내 “잘들 살아요.”라는 저주의 말을 남기고는 그 집을 나와 버린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승호어머니는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다가 적에게 붙들려 죽은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곧바로 산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아무리 잘 살고

자 하나 잘 살 수가 없다”고 하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고 그래서 이 “야박한 용정 아니 돈만 아는 놈이 사는 이 용정”을 벗어나 남편이 간 산을 향해 걸기로 한다. 그러나 “9.18”사변 뒤의 토벌로 하여 축발이 된 시골이라도 가도 못할 상황에 처하여 눈구덩이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버지가 못 다한 사업을 이 아들로 완성하게 하리라”고 다짐을 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이다. 만주땅이 일제에 의해 강점된 후 험악해진 만주의 현실에서 혁명이 가족이 겪는 불행을 리얼하게 그린 작품이라 하겠다. 동시에 승호 어머니의 시형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강압에 의한 일부 이주민의 변질상도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못 다한 사업을 아들로 완성하게 하리라”고 한 주인공의 의지에서는 강경애의 드팀없는 계급이념과 작가적 자세를 보여 주었다 하겠다.

4. 열악한 환경에서의 자기편달

그러나 덜미를 조이는 일제의 강압과 주위 환경의 변화는 계급이념에의 강한 의지를 보이던 강경애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러한 영향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강경애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반성이나 성찰을 시도한다. 「동정」, 「원고료 이백원」, 「번뇌」 등 작품이 이에 속한다. 사실 이러한 자기반성 혹은 자기편달의 모티프는 강경애의 초기소설에 해당되는 「그 여자」에서 이미 드러난다.

우연한 기회에 작품을 발표하여 문학청년에서 일약 여류작가로 데뷔한 마리아.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어째서 자기가 이렇게 쉽사리 여류작가가 되었는지 반성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와 같은 재사(才士)는 드물다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다.” “길가에 나서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자기 한사람에게로 집중된듯하며 그만큼 자기는 인기 인물같이 생각되었

다. 무엇보다도 여자로서는 글 쓰는 사람이 적은 것만큼 자기 한 사람에게만이 가능하다고 인정됨으로써였다.”

이런 그가 일두거우(二頭溝)라는 마을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달가운 일은 아니었으나 “문예가는 때때로 여행도 해야 한다더라 하는 생각을 하자 농부들보다도 농촌의 자연미를 구경하는 호기심 그것에서 어떤 명작이나 하나 얻을까 하는 바람이 그로 하여금 커다란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리고는 강연 중에 “노동자 농민을 부르짖고 현대 조선사회상을 들추어냈다.” “죽어도 내 땅에서 죽고요, 살아도 내 땅! 내 땅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요.”라고 열변을 토한다. 그러나 그러한 강연을 듣는 “간도농민”은 “내 땅”에서 “정들인 그 밭! 그 논을 무리하게 이유 없이 떼”인 이주 농민들이었다. 따라서 “민족이 뭐냐! 내 땅이 뭐냐!”라고 쌓인 원한을 토로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마리아는 “적어도 나는 조선의 최고학부를 마치었으며 더구나 조선에서 드문 여류작가이고 게다가 어썩은 미모의 주인공이다.”라고 자신을 위안했고 “농민이 아니냐.” 하며 속으로 농민을 경멸한다. 결국 청중은 갑자기 욱 쏟아 일어나서 분노를 터뜨리며 “마지막 비명을 토하는 종 옆에 갈가리 옷을 찢긴 마리아는 쓰러져서도 자기의 미모만을 상할까 두려워서 두 손으로 얼굴을 꼭 싸쥐고 폴폴 떨고 있었다.”

여기서 주인공 마리아의 형상에는 강경에 자신의 모습이 많이 담겨있는 듯이 보인다. 촉망받는 조선의 여류작가이고 또 용정에 들어온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나 이색적인 용정의 거리 모습에 대한 묘사, 구역질나는 중국인의 누런 이에 대한 묘사 등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노동자 농민을 부르짖고 현대 조선사회상을 들먹거리면서 동시에 농민의 무지함이나 불결함을 경멸하는 마리아의 의식과 행위의 괴리에는 작가의 자기성찰의 의미가 다분히 담겨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정」에서의 작중화자인 “나” 또한 「그 여자」에서의 마리아와 비슷한 경우다. “나”가 의사의 권고에 따라 산책을 하다가 만난 화류계의 여인에

게 기회를 타 도망치라고, 집에 놀러 오라고 동정을 보내놓고는 마지막 단계에서 배신을 해버림으로써 불행한 이주민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형님, 난 나 갈래!”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나는 전날 어떻게든지 기회만 봐서 도망이라도 하면 내 여비같은 것은 담당해 주마던 기억이 얼핏 떠오르며 저가 러비를 구하러 왔구나! 하며 버쩍 씩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눈이 둥그래서 그를 쳐다 보았습니다.

“가기는 어딜 간단 말야, 갑자기.”

나는 불쑥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해구제음악회에서 삼원을 기부하였는데, 또 돈 쓸 일이 나지 않는가? 그러라면 이달에 살기가 좀 어려울 터인데 필시 이달엔 저금은 못하지.” 하는 속궁리가 뒤를 이어 내달았습니다.

동정해준 화류계 여성이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나”의 반응을 그린 장면이다. 그리고 결구에 가서 “‘산월이가 죽었대우! 불쌍해!’ 하고 나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속히 죽게 된 원인은 내가 말로나마 동정을 해서 죽었는지? 안 해서 죽었는지? 어느 한 가지에 있으리라고 나는 얼핏 느꼈습니다.”고 했다. 이주 지식여성의 알량한 사심을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나”의 형상에는 작가 자신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니까 작가인 강경애의 입장에서 이것은 당연히 일종의 자성이나 자기편달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작가 의식의 후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산월이가 열두 살에 빗값 때문에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하며 “아리랑타령을 하고 사내들 앞에서 아양을 피우지 않으면 안 될 신세”가 될 때까지의 불행한 운명을 그린 것 이라든지, “물 길리고 빨래 시키고 동자 시키고 또 그 노릇(매춘-인용자) 시켜서 돈 벌어” 주인에게 처넣는 산월이의 현실적인 아픔을 표현한 것이라든지, “이 세상은 언제 망할까요. 그저 대포로 모두 쿵쿵 뇌버렸으면……” 하는

식으로 산월이의 분노를 보여준 것 등에서는 여전히 강경애의 계급이념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원고료 이백원」도 작가의 자성이나 자기편달이라는 측면에서 「동정」과 같은 차원이다. 신문에 장편소설을 연재하여 받은 원고료 2백원으로 평소 갖기를 원하던 털외투, 목도리, 구두, 금반지, 금시계… 등을 마련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나”와 그 돈으로 출옥 후 앓고 있는 동지를 입원치료해 주고 수감 중인 동지의 부인을 돌봐야 한다는 남편의 대조적인 사고방식에서 독자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작가적인 자성에 다름 아니다. 특히 강경애가 당시 『동아일보』에 장편소설 「인간문제」를 연재하고 원고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러한 판단을 거의 확신하게 한다. 그리고 다음의 예문에서는 작가의 계급이념이나 저항의 의지를 보다 강하게 느낄 수가 있다.

K야, 이 간도는 토벌단이 들이밀리어서 지금 한창 총소리와 칼소리에 전대중이 떨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농민들은 들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며 또 산에서 나무를 베지 못하고, 혹시 목숨이나 구해볼까 하여 비교적 안전지대인 용정시와 국자가 같은 도시로 몰려드나 장차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이곳에서는 개목숨보다 사람의 목숨이 험하구나.

이와는 달리 「번뇌」에서는 혁명가의 환멸과 변질이 표현된다.

「번뇌」에도 작중화자로서 “나”가 등장한다. 소설의 주요내용은 남편의 동지인 R이 술에 취해서 들려준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먼저 자신의 고향 및 성장과정에 이어 만주에서의 활동상황 등에 대해 긴 이야기를 늘어놓고 나서 이어진 이야기는 뜻밖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7년여의 감옥생활을 끝마치고 재작년에 출옥했을 때 너무나도 변해버린 세태와 인심에 환멸을 느끼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명동에서 아직 수감 중인 동지의 집을 찾을 수 있었고, 아들이 나올 때까지 같이 있어달라는 동지 어머니의 청에 따라 마침 그곳 명동학교의 교사직을 얻은 것을 계기로 그 집에

눌러있게 되는데 그 뒤부터 동지의 아내에 대한 연모의 정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에 따를 경우 R은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는 사뭇 다른 이념 활동가라 할 수 있다. 한때 만주와 연해주를 오가며 “간도의 민중”을 부르짖으며 싸웠던 R이 오랜 수감생활로 심신이 나약해지고 출감 후에 목도한 세태와 인심의 격변에 환멸을 느끼며 심지어는 수감 중인 동지의 아내에 대한 연정 때문에 번뇌한다는 것은 혁명가의 엄청난 변질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 작품에서 “간도의 민중”이라는 말이 다시 출현한다. 앞서 살펴본 「그 여자」에서 보이는 “간도농민”과는 같은 맥락이고, 이는 곧 주인공들의 계급이념과 직결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민중을 부르짖던 혁명가 혹은 투사들의 의지 동요를 보여준 것이 된다. 앞의 「동정」이나 「원고료 이백원」에서는 나약해지고 타락해가는 이념지향의지를 자성하며 편달하던 데로부터 「번뇌」에 오면 이제 보다 심각해진 이들의 의지 동요와 환멸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5. 어둠 속에서의 몸부림

끊임없는 자성이나 자기편달을 시도한 작가에게 있어서도 1937년 일본이 중국 내륙을 침략한 이른바 “지나사변”으로 불리고 있는 “7.7”사변을 전후하여 험악해진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암흑이었던 것 같다. 「마약」, 「어둠」, 「검둥이」 등 작가의 말기 작품의 표제만 보아도 느낄 수 있는바 이들 작품에서는 그러한 암흑한 현실이 너무나도 절박한 상태로 표현된다.

「마약」에서 암담한 사회 현실과 삶의 여건은 주인공들의 인간성 혹은 도덕성마저 상실하게 한다. 순사가 나타나자 보듯 아버지는 “나는 등록하였수!” 한다. 아편쟁이로 등록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나 순사는 계집을 죽

인 놈이라며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찬다. 사실 남편은 아편을 흡입하기 위해 아내인 보득 어머니를 중국인 진서방에게 팔았던 것이다. 그런 사연을 알고서도 아내는 밤중에 진서방댁을 빠져나가 도망친다. 남편과 아이, 특히 보살필 사람이 없는 젓먹이 아이를 위해서다. 그러나 보득 어머니는 도주 도중 머리를 다치며 결국 죽어버린다. “아가 아가……어쭉 일어나 봐……홍 제, 남편은 어찌될 줄 알고 이제 등록한 아편장이가 될지 어떨지…… 고요히 숨이 끊어지고 만다.” 이것이 이 작품의 결구부분의 묘사인데 아편중독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한 남편과 죽으면서까지 그런 남편이 나마 젓먹이 아이 보득이 못지않게 걱정하는 보득 어머니의 인간성이 대조적으로 그려진다. 의식의 흐름 기법에 가까운 심리묘사가 긴장감을 더해 주어 작가의 성숙된 묘사력을 과시해준다. 순사에게 잡혀가면서 자식을 걱정하는 보득 아버지의 심리묘사는 남편의 인간성 상실이 아편 때문임을 보여준 것이며 아편흡입 또한 열악한 사회 환경 때문임을 감안하면 이 작품에서도 강경애의 사회비판성은 여전히 강하게 비쳐지고 있다 하겠다.

사회비판적 의식 뿐만도 아닌 것 같다. 「어둠」과 「검둥이」에서는 지극히 암시적이거나 앞에서 논의한 「원고료 이백원」이나 「동정」, 「번뇌」 등 작품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작가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먼저 「어둠」의 경우 “간도공산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형일 혁명운기의 가족의 고난과 과거 운동가의 전향”⁷⁾을 그렸다고 할 정도로 여전히 강경애의 이념지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표현은 너무나 암시적으로 되어있어 그런 지향성을 쉽게 감지할 수 없다. 다만 “오빠는 저러한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셈인가!”라는 주인공이자 작중화자로 등장한 영실의 생각이나 “—우리는 없는 놈이니가 같은 없는 놈을 동정하여야 하고 보다는 이러한 생지옥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영실 오빠의 말, 그리고 “가장 가난한 처지에서 해매는 김서방과

7) 이상경, 『강경애 전집』, pp.819~820.

자기, 그래서 ...역시 오빠의 죽음에 대하여도 누구보다도 이해가 깊은 것을 깨달은 것이다.” “기미년 토벌난에 아버지를 잃어, 또 오빠를 이 모양으로 잃어, 우리 집안은 무슨 못된 운수인가” 등의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 운동가의 전향도 “십년 전 의사가 이 병원에 갓 부임했을 때는 모든 일에 열과 피가 움직였다. 특히 빈한한 환자에게 한하여는 수술료 같은 것은 반감하였고 또는 사정만 하면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원장과도 말다툼이 잦았으며, 한때는 사직한다는 말까지 있어 시민들까지 우려하였던 것이다.” “때는 흘렀다. 거기에 따라 인심도 흐른 것인가, 십년 전 의사와 오늘의 그는 판사같은 것처럼 변하여진 것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사가 영실이와의 사랑관계를 끊고 다른 여성과 약혼을 했든지, 그 의사가 투쟁하다 잡혀 사형당한 오빠에 대해 추호의 슬픔도 보이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도 그런 표현이 될 것이다. 혁명가의 누이동생이 너무나도 큰 슬픔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슬픔을 외면하는 전향 운동가나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미쳐버린다는 설정도 마찬가지다. 또한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있다. 소설의 제목이 “어둠”이고 작품 마지막 문장이 “어둡다.”로 끝나고 있는 점이다.

「검둥이」에서도 작가의식의 표현은 「어둠」에서와 거의 비슷하다. 양심을 꺾지 않는 K선생의 고민이 그려지고 있는 이 작품에서 검둥이는 K선생이 강아지적부터 애지중지 키우던 개인데 최고장이 욕심을 내어 주어버렸다. 그런데 최고장네는 K선생네가 검둥이에게 먹이를 주어서 정을 때지 못한다고 싫어하는 눈치를 보인다. 그래서 K선생은 수업 중에 교실에 들어온 검둥이를 때리기까지 한다. 한편 신병 때문에 끼니를 굶은 K선생은 휘청거리는 몸으로 최고장을 찾아가 강연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양심을 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작품이 미완의 상태로 발굴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야기 진전은

8) 『삼천리』지에 게재될 때 “(계속)”이라는 문구가 있고 『강경애전집』의 편자인 이상경도 “『삼천리』 1938년 5월호 이후에도 더 연재되었으리라고 짐작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던가를 보여준 K선생의 추억으로 보든지 다음과 같은 지문의 표현들,

어두컴컴한 지하 속, 촛불이 노란빛을 퍼치고 있던 흠내 가득한 그 속에서
밤을 낮 삼아 일하다가 피곤에 지쳐 잠깐 눈을 감았다가 놀라 깨니,

“어서 좀 쉬우.”

빙긋이 웃으며 저고리를 벗어 그의 어깨에 걸쳐주던 저. 벽에서 떨어진 얼
굴의 흠보라를 조심히 씻어주던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하던 저 손!

목을 끌어매어 호홉조차 임의로 할 수 없는 듯한 이 현실에서 그나마 뜻을
버리지 않으려 애쓰는 우리들이거니, 조그만 이해분제 때문에 이렇게 소홀히
할 것이라!

요새 직원들의 눈치를 보나 일반의 여론을 들으나 교장보다 자기가 더 저
게 주목을 받고 있음을 뻔히 안다. 그래서 학교로서 받는 타격이 적지 않게 있
음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등을 감안해보면 우리는 최고장이 K선생더러 나가라고 한 강연은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에 아부하는 내용이거나 계급적 이념을 배반하는 내용일 가
능성이 많다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비록 속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런 흐름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여기서 양심이라고 한 것은
민족의식이나 계급이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38년의 시점에서
“양심을 꺾는 일”이란 민족적 배신이나 계급적 배신을 의미할 것이기 때
문이다.

이상 살펴본 네 편의 작품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분위기는 “어둠”이
다. 「지하촌」이나 「마약」의 경우는 어두운 사회 환경과 그 속에서 간신히
연명해 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그려지고 있고 「어둠」과 「검둥이」에서
는 혁명과 투쟁의 좌절, 그리고 좌절 뒤의 타락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어둠」에서의 의사나 「검둥이」에서의 최고장은 「번뇌」에서의 R

해당 잡지를 찾을 수 없어 제1회분만 수록했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

에서 한걸음 더 타락한 전향자로 볼 수가 있어 현실의 암담함을 보다 강하게 느끼게 한다.

6.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강경애의 간도이주민 관련 소설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채전」이나 「축구전」에서는 작가의 계급이념을 실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유무」에서도 암시적이기는 하지만 역시 그러한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금」이나 「모자」에서는 그러한 이념을 주인공의 고달픈 운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어 「그 여자」, 「동정」, 「원고료 이백원」 등 작품에서는 안이에 빠지려는 운동가의 환멸의식을 꼬집으면서 자성과 자기편달을 시도하며 「마약」, 「어둠」, 「검둥이」 등에서는 현실의 암흑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상당 정도 작가의 상실감과 좌절을 표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된 바 있지만 저항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상 논의된 작품은 대체로 하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노골적인 계급이념 표현에서 점차 현실비판으로 바뀌다가 결국 짙은 상실감과 좌절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작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말기작품에 이르기까지도 강경애의 작가의식은 저항과 계급이념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다.

머리말에서 필자는 이민문학의 시각에서 강경애의 소설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에서 다루어진 작품들은 이주민의 생활에서 취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강경애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간도 땅을 혁명과 투쟁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간도를 등지면서, 간도야 잘 있거라」, 「간도의 봄-심금을 울린

문인의 이 봄, 「두만강 예찬」 등 수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거니와 본고에서 다룬 다수의 소설에서 강경애는 투사와 투쟁을 지향한 이주민들의 형상을 부각하고 있다. 계급적 이념의 소유자인 강경애에게 있어 이주민의 정체성은 투사로서, 투쟁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즉 안수길처럼 현실에 저항도 하고 더러 타협도 하면서 이주민의 생존을 꾀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을 부정하고 지배자와 투쟁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보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말이 된다.

□ 참고문헌

- 고은미, 「강경애 소설의 여성의식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1996.
 오양호,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연구』, 문예출판사, 1996.
 이상경, 『강경애 연구』 : 작가의 현실 인식 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1984.
 이상경, 『강경애 : 문학에서의 성과 계급』,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이상경 편, 『강경애전집』, 소명출판, 1999.
 이주형·권영민·정호웅 편,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2, 강경애 편, 태학사, 1988.
 채 훈, 『일제강점기 재만한국문학연구』, 깊은샘, 1990.

Abstract

The Jiandao Experience and Kang Kyong-ae's Fiction

Chang, Ch'un-Sik

Kang Kyong-ae, who lived in Longjing [Korean: Yongjong], Jiandao [Korean: Kando] for a decade from the early 1930's to the early 1940's, used that experience in twelve of the twenty-one works that she published during her lifetime. The present study will classify her fiction based on the Jiandao experience into four groups and examine them in terms of migr literature or literature created by ethnic Korean migrs in China.

Works such as "A Vegetable Garden [*Ch'aejon*]" and "A Soccer Game [*Ch'ukkujon*]" express their author's class ideology in terms of praxis and "Existence and Nonexistence [*Yumu*]," though less explicit, likewise reveals Kang's will to social action. Such characteristics have served as an important reason to call Kang a writer with sympathies for KAPF literature. Indeed, "Salt" and "Mother and Son [*Moja*]" reveal class ideology through the difficult lives of their main characters. Works including "That Woman [*Ku Yoja*]," "Compassion [*Tongjong*]," "Contribution Fee 200 Won [*Wongoryo Ibaeg Won*]," and "Agony [*Ponnoe*]" criticize activists' disillusion and thus prompt self-critique and introspection. On the other hand, "Mother and Son," "Drugs [*Mayak*]," "Darkness," and "The Nigger [*Komdung'i*]" betray a considerable sense of loss and despair on the author's part despite their raw exposure of dark reality.

As an expression of Kang's resistant will, the thematic tendency of these works shows a downward movement, for it progresses from the manifestation of blatant

class ideology to a critique of social reality, finally to a deep sense of loss and despair. Nevertheless, it is undeniable that her authorial consciousness consistently hinged on resistance and class ideology in both early and late works.

At a glance, Kang's works, though, based on her Jiandao experience, may not seem to address the issue of migridentity in depth. That is a false observation, however, because the author clearly saw Jiando as a land of revolution and struggle. It is then possible to say that, for Kang, who adhered to class ideology, migridentity existed for the resistant fighter or anyone who would be one. In other words, she was able to secure and to maintain her identity by utterly negating reality and struggling against colonial masters unlike the writer An Su-gil, who led an migrlife by partly resisting reality and partly compromising.

key words : Kang Kyong-ae. Jiandao experience, migr identity, literature by ethnic Koreans in China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3월 31일 심사 완료 후, 4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